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계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정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창원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료수	1771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월 19일 금요일	Issue No.	1771
		Date	Nov. 28, 1969: Fri.

비에트남 철병 이미 달성 닉슨 대통령 확대계획 발표 예정

(화싱은 11월 25일 밤, 에이미) 국방총성대변인은 25일, "닉슨 대통령은 아직 추가철병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비에트남 철병은 계속된다" 라고 말했다. 동대변인은 "철병은 진행. 계속중의 계획이다" 라고 하고, 현재의 목표였던 6만명 철병은 12월 15일의 예정일보다 먼저 완료되었는데 이 진행상황에서 더 철병인원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레아드 국방장관도 철병의 진행상황은 계속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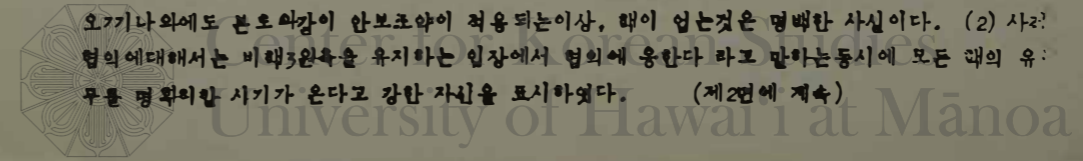
닉슨 대통령은 12월만, 제2차 철병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방총성은 해당인원, 시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철병계획을 공포하면, 파리 회명 회담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라틴진태도가 더 업서질 것이라는 닉슨 대통령의 의향에 보코를 마친 것이다.

제2차 계획에서는 12월 15일까지에 주남비에트남 미군 병력을 48만 4천명의 선으로 감원한다고 하는데, 이미 11월 20일에 그 목표가 달성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이전, 미군 사상자가 증가하고, 적인 남비에트남내에서 병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이 명백이 된 경우나, 전 수행위가 심하게 격화되는 경우에는, 철병계획의 진행을 느린다는 경고를 하였다. 레아드 국방장관은 전주 상원에서 "닉슨 대통령은 북비에트남군의 남비에트남에의 침투가 작년 동기와 비교해서 8할 감소되었다고 말하였는데, 최근 침투는 다시 증대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 침투의 증대에 대해서 국방총성은 아직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미. 일 수뇌 회담 종결 일본은 한국, 대만의 안전에 큰 관심

(동경 11월 26일 밤, 동동) 미. 일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일본의 사쓰수상은, 26일 오후 동경. 나가다코의 수상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급우의 정국에 대해 소신을 명백히 하였다. 수상은 변환후의 오기나와는 문자메모 해업은 그리고, 랩을 다시 가져 들어 오지 못하는 곳으로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 대만의 안전에 대해서 일본은 큰 관심을 갖고, 어떠한 한 마은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하고, 국통의 안전보장에 대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국회해산에 대해서 중시 회답을 피하면서, 세튼에 따르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와 여당이 협의하여 결단한다고 말하였다. 변환후의 오기나와의 기지의 모양에 대해서는 (1) 본오에 랩은 쉽다. 오기나외에도 본오와 같이 안보조약이 적용되는 이상, 랩이 업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2) 사려 협의에 대해서는 비핵3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협의에 응한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모든 랩의 유무를 명위의 랩 시기가 온다고 강한 자질을 표시하였다. (제2면에 계속)



한국에의 관심을 특히 강조

국동의 안전과 일본과의 관련에 대해서는 특히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강조,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허락되는 한의 노력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말하는 동시에, 재한미군이 국련군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격은 국제법칙을 유지하는 견지에서 일본으로서도 생각해야 된다" 라고 말하였다.

공동성명 내용

또 공동성명에서는 (1) 비에르넬집이 "돗나지안트라도 오기나와는 1972년 중에 변환되며, 그경수 비52의 철거를 요구한다. (2) 한국반도, 대만이 일본의 안전에 관계가 깊다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고, 국민의 상식이다. (3) 전번의 미국방문과는 달라, 중공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기분이 강하고, 그 점에서 미.일의 의견은 일치하였다. 동의 점에 언급하여 주목되었다. 일본총선거를 중심으로 하는 당면의 정국에 대해서는, 수상은 출발당시와 심경은 마찬가지로 말하고, 심중히 위선을 피하였는데, 해산의 가능성은 중시 부정하지 않았다.

오기나와의 국정참가

또 오기나와의 국정참가에 대해서는 아직 곤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한 후, 다음의 통상국회에서 제안한다고 말한 것은, 관제측에 강한 "조기실현"의 요망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표시한 것으로서 주목된다.

변환은 원측에 합의뿐, 버드의원 연설

(워싱턴 11월26일 밤 공동) 버드미상원의원은 25일 국회상원본회의에서 연설, "전의 사.도.니스 공동성명은 오기나와의 조기변환에 대한 원측에 합의한 것 뿐이다. 최종적으로 어찌 될 것인가는 금후의 교섭여하에 달렸다. 또 최종적인 변환협정은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상원의 양당 수뇌는 조기변환에 호의적인데, 내가 말한 만은 상원의원은 그러치도 않다." 라고 말하였다. 버드의원은 공동성명이 원측만에 "그친 것"에 "솔직히 말해서 안심했다" 라고 말하고, "필요한 입법부의 지지여하" 라는 것은 "여하한 형태이든 변환협정이 상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사.도.수상, 닉슨대통령이 다 인정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버드연설을 5일 상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된 버드결의를, 상원이 금후 변환고섭을 간접적으로 견제할 목적으로 본다.

해외 미군과 영사관을 삭감

(워싱턴 11월26일 밤, 에이피) 미국방총성은 26일 해외주류군 1만5천명, 군속 3천8백25명의 삭감을 발표하고, 동시에 배아관은 영사관 19개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의해서 연간 총액 5천만불의 예산삭감은 전에 발표된 금년도 22만5천명 감원계획의 하나로, 이번의 중심이 되는 것은 레명양지역에서 1만9백65명이 감원된다. 서독, 한국, 남비에르넬 등의 주류군은 대상이 되기 안다. 배아관발표에서는 폐쇄되는 총영사관은 에데보리(스웨덴), 영사관은 베로.호리손데(부라질), 코차반바(보리비아), 노가레스(멕시코) 등 중남미제국이 만코, 19개소중 15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북비에르넬과 회담의 용의, 랫지달

(파리 11월26일 밤, 에이피) 26일 열린 파리 확대 회담 제44회 본회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랫지 미수석대표는, "미국은 남비에르넬에 있어서의 연립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하노이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 문제와 다른 어떤 문제에 관한 협약에 대해서도 남비에르넬정부의 인가가 필요하다" 라는 견해를 말하였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랫지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회담의 석상에서 말하였는지는 아직 명백치 않은데, 북비에르넬대표는 "오늘의 회담에도 진권이 업었다" 라고 말하였다.

세군병기사용금지를 부순 대통령 선언

현존의 관제병기는 처분

(워싱턴 11월25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25일 "미국은 금후 세군병기의 사용의 일제제지를 한다. 또 미국은 지사성 그리고 부능성 화학병기를 상대국보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이 일련의 화학.생물병기에 대한 새로운 방침은 "평화의 목표달성" 이라고 말하였다. 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상대국이 세군병기를 사용하더라도, 금후 미국은 세군병기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 현재 저장되어있는 세군병기의 처분에 대해서는 국방총성에 권고를 할 예정이다.
- 1. 화학병기는 지사성, 부능성 파감이 미국으로부터 먼저 사용할 일은 없다.
- 1. 장래의 생물병기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연구는, 라국이 사용할 것인지도 모른다는 세군병기에 대한 면역성의 형성의 연구등의 방어수단에 한정 될 것이다.
- 1. "질식성 개스, 독개스 기타의 개스성물질과 세군병기"를 자국 으로부터 먼저 사용할 것을 금지한 1925년의 제네바협정을 상원은 속히 비준하기 바란다.
- 1. 미국은 영국이 모소하고있는 생물병기사용금지 회약의 원측과 목적을 캐나다와 연명으로 지지하는 것이다.

추첨징병제 12월-일부러 개시

(워싱턴 11월26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26일, 추첨제에 의한 징병제도설치의 권한을 대통령에 주는 개정법안에 서명하였다. 이 징병개정법에 의한 주차위선발에서는, 징병해당의 최우선 연령은 19세 - 20세의 일년간으로 된다. 대통령은 종래의 징병법에서는 19세-26세의 기간 언제 징병을 받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 항상 불안을 가졌는데, 신제도에서는 그것이 엄서적이라고 한다. 신제도에 의한 제1회추첨은 12월1일에 거행된다. 70년도의 징병해당자는 현재 1-에이 에속하고 있는 전원으로 되기 때문에, 예년보다도 다수가 되어 있다. 신규징병은 예년 약 30만명인데, 70년도 해당자는 그의 6배의 다수이기 때문에, 징병의 확율은 6명에 1명의 배당, 그러나 금후에는 19-20세에 한정 되기 때문에, 확율은 2인에 1인으로 될 것이다. 닉슨대통령은 개정법이 징병상의 불공평을 시정하는 것을 지적하는 동시에 "최종 목표는 완전한 지원병제도이다" 라고 대통령선거의 적의 공약을 다시 강조하였다.

아폴로 12호의 3비행사 다 건강, 승진

(휴스턴 우주센터 11월25일 에이피) 착수시 까지 "정확한" 기술을 보인 아폴로12호의 3비행사는 회수함포모함 호넷상의 이동카리실에 들어가, 하와이출항해서 진행중이다. 카리실부속의 샤니간 의사는 3인이 다 건강양호라고 보고하였다. 3비행사는 카리실에 들어간 직후 닉슨대통령은 배아관 으로부터 전 화로 아폴로12호의 성과를 칭찬하고, 3비행사의 해군대령에의 승진을 전하는 동시에, 카리기간이 종료한 후 배아관의 만환회에 초대하였다. 3인중 빈비행사는 37세, 미해군에서 최년소의 대령이다. 오넷에 승선하고있는 패케인 태평양항공사행권은 유리창넘어오 3비행사와 말을 하고, 연초를 한상자시 선물하였다. 한편 콘넷, 빈양비행사가 원면에서 채집한 암석과 촬영 필름은, 오늘오후에는 오넷으로부터 휴스턴에 공중수송될 예정이다.

(제4편에 계속)



(제3면으로부터 계속)

류스는 관제시퀀서에서 아폴로 계획관계자는 12호의 성과를 칭찬한후, 아폴로 13호의 발사는 내년 3월 12일이 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13호는 12호의 착지점은 12호의 도착지점으로부터 남동약 100마일의 앞은 화구, "우라.마우르" 에 착지할예정, 승무원은 제임스.라벨, 토.마스.매팅그리, 후렛 헤이스 비행사들이다.

비에트남 전선으로 귀환 제 29 보병 여단

비에트남전선으로부터 귀환한 제 29 보병 여단의 용사들을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 약 3백명이 25일밤 호놀룰루국제공항에서 출항하였다. 8시 밤비행기로 도착한 약 2백명의 병사는 금주에 철수되는 동 여단의 700명 중의 일부이다. 그들은 스코필드형영의 제 29 여단에, 제대수속대문에 제편입된다. 이들은 1968년 소집된 하와이국민군과 육군예비병으로, 보충때문에 비에트남에 파견된것이다. 귀환의 항공기에 기본에관해서 그들은 참 조원다고말하고, 생애에서 최고였다고 말하였다. 그중에는 비행기속에서 우라.댄스를 가르키고있는자도 있었다. 오늘밤에도 계속 귀환의 병사가 도착 될 예정이다.

이민법의 대폭 수정안 마스나가 의원등이 의회에 제출

하와이선출 스파.크.마스나가씨등 국회의원의원 50명 공동제출의 현행이민법의 대폭수정안이 24일의 회에 상정되었다. 신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같다.

- (1) 미국입국인민수를 연간 30만명으로 증가할것
- (2) 미국입국을 허락받는 이민의 우선선택제를 전체적으로 적용할것 (현재에는 극적별 지역별)
- (3) 현행법의 서반구외의 적용은 신청순서로되어있기때문에, 미국시민의 근친자 (예를들어 시민의 형제자매)나 이미 영주권을 가지고 오래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처자라도, 전혀 새로운 이민 신청인에 우선권을 빼끼는 경우가 만라. 현행법을 수정하여 미국시민의 근친자, 영주권소유의 비시민의 가족에 우선권을 준다.
- (4) 현재의 우선제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특수, 직업분야에있서서의 신청인의 체적을 제외한다. 예를들면, 우선순의 제3위에있는 전문직업, 숙련노동자의 신청등 오는 1년이상의 신청 과잉으로 지체되고있다. 이러한 일방적인것을 업세도록 현행우선제를 개혁한다.

김세원씨, 비에트남 임지로 향발

호놀룰루한국총영사관의 공관장으로 8년동안 시무하시다가 주남비에트남공사로 새로 임명올받은 김세원씨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12시 반비행기로 한국을 경유, 비에트남으로 향하였다. 이날 비행장에는 한인사회의 유지, 친지 대다수가 환송차 출항, 떠나가시는 김세원씨의 앞길을 축복하였다. 동부인은 하와이에남어서 학업을 계속할 자녀 세사람의 자리가 잡힐것을보고 곧 비에트남으로 출발하실 예정이라고하는데, 그 날자는 아직 미정이라고한다.

호랑기독교교회서 새임원 개선

호랑한인기독교교회에서는 지난 11월 16일, 한어.영어종합예배후 3년 임원선거를하였는데, 임원추천회에서 추천한 임원후보자들은 모두가 시무도록 작정 되었다고한다. 1970년도의 임원회회장에는 김창원씨가 선출되었고, 부회장에 김영기씨가 미선 되어 오는 1년동안 교회사무에 힘을 쓰게 되었다고한다. 한인교회발전을위하여 청년층의 적극후원 참가를 목표로 일하려는 이들에 대한 성원이있기를 교인들은 다 기대하고있다고한다.

